

[MLB]카이클 7이닝 10K 무실점...휴스턴, ALCS '기선제압'

등록 2017.10.14 13:33:16



【휴스턴=AP/뉴시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소속의 달러스 카이클이 1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2017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4선승제) 1차전에 선발 등판, 역투를 펼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12년 만에 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 나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휴스턴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2017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4선승제) 1차전에서 선발 달러스 카이클의 역투를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를 3승 1패로 물리치고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챔피언십시리즈에 오른 휴스턴은 12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선발 투수 카이클의 호투가 단연 빛났다.

카이클은 7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슈아내며 4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볼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지난 7일 보스턴과의 디비전시리즈 2차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제 몫을 해냈던 카이클은 2경기 연속 호투를 선보였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디비전시리즈에서 2패 뒤 3연승을 거둬 힘겹게 5년 만에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에 성공한 양키스는 첫 판을 내주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양키스의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도 6이닝 4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 투수가 됐다.

휴스턴 타선이 카이클에게 안겨준 점수는 2점이 전부였다.

4회말 1사 후 내야안타를 때려낸 호세 알투베가 2루를 훔치면서 휴스턴은 1사 2루의 찬스를 잡았다.

휴스턴은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카를로스 코레아가 좌전 적시타를 때려내 선취점을 뽑았다.



【휴스턴=AP/뉴스시스】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포수 브라이언 맥캔(사진 오른쪽)이 1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2017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4선승제) 1차전에서 5회초 홈으로 파고드는 그렉 버드를 아웃시키고 있다.

마윈 곤잘레스의 땅볼 때 코레아가 2루를 밟으면서 2사 2루의 득점 찬스를 이어간 휴스턴은 율리에스키 구리엘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내 1점을 더했다.

양키스도 이어진 5회초 그렉 버드의 안타와 상대의 수비 실책을 엮어 무사 1, 2루의 찬스를 잡았다.

그러나 토드 프레이저가 중견수 직선타로, 브렛 가드너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계속된 2사 1, 2루에서 에런 저지가 좌전 안타를 때렸으나 2루 주자 버드가 홈으로 파고들다가 상대 좌익수 곤잘레스의 빨렛줄 송구에 잡혀 아웃됐다.

양키스는 카이클이 마운드를 내려간 뒤인 8회 볼넷 2개로 2사 1, 2루의 찬스를 잡았다. 하지만 디디 그레고리우스가 헛스윙 삼진을 당해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양키스는 9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버드가 우월 솔로포를 작렬, 1점을 만회했다.

하지만 추가점을 내지 못해 영봉패를 면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휴스턴과 양키스의 챔피언십시리즈 2차전은 15일 벌어진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